

'바람과 물의 역사' 구름 관객

광주시립미술관 **오승윤** 화백 회고전 '대박' 초기~말기·반환작까지 전시



지난 2004년 제5회 광주 비엔날레의 출품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이 작품은 고인의 죽음 이후 일반 관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특히 이 작품은 A화랑측이 판화제작을 이유로 생전 오승윤에게 근절기계 요구했던 작품으로 고인은 이 같은 화랑측의 강요에 시달렸다는 후문이다. 화랑측은 지난 2005년 판화제작을 명목으로 오승윤의 유화 작품 33점을 건네 받은 후 오승윤의 타계 이후에도 유가족에게 작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가족과 A화랑은 약 1년여 동안 유작 반환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이 작품 반환 민사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 주면서 이들 작품들이 유족의 품으로 되돌아 왔고 '바람과 물의 역사'도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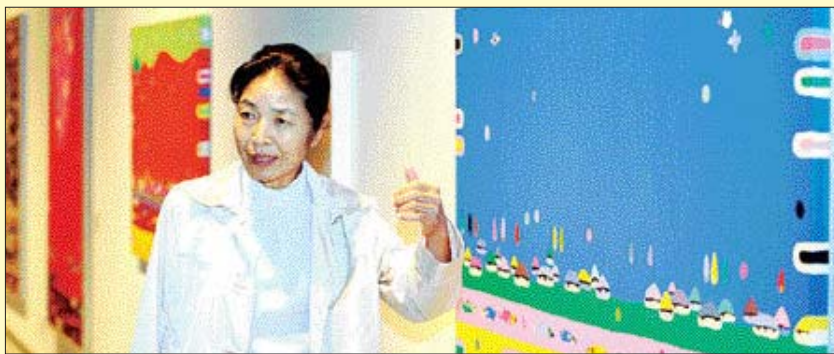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반환받은 작품 중 이번 전시에는 '산과 마을'(2005년), '오월'(2002년) 등 유화 2점과 2003~2004년에 제작된 '노란물과 새들' '겨울 밤' '호수' '산과 강' '새벽' '녹색산' '강' 등 판화 42점이 전시됐다. 또 미공개 작품인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등 9점도 전시했으며, 고인이 아내 이씨를 그린 '처



1일 오승윤 화백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관객들이 '바람과 물의 역사'를 감상하고 있다. 위, 아래는 남편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부인이 상설씨.

■ **오승윤** 화백

풍수 시리즈로 세계적 명성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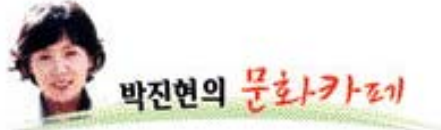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오승윤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으로 90년대 이후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5년 화집출간과 판화제작, 전시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A화랑과 계약을 맺었지만 화랑측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2006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카고의 구애, 광주의 무심

요즘 시카고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이하 시카고 심포니)의 지휘자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티(66)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시카고 심포니는 뉴욕 필하모닉과 바꾸지 않는다고 할 만큼 시카고 시민들의 자랑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9월 악장 새뮤얼 매그드가 물러난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해 1년여 동안 가슴앓이를 해왔다. 특히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시카고 심포니'를 이끌어 줄 거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입 제1순위로 떠오른 사람은 리카르도 무티였다. 19년간 이탈리아 최고 명문 오페라극장인 라 스칼라를 이끈 무티는 지난 2005년 노사분규로 사임한 뒤 무직(無籍)으로 지내왔다. 그는 세계 유수의 악단으로부터 프리포즈를 받았지만, "음악 감독이든, 대통령이면 그 어떤 곳에도 가지 않겠다. 나는 '리베로'가 되고 싶을 뿐"이라며 고사해 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카고 전체가 무티 영입에 열광했다. 시카고 심포니의 행정 사무국 뿐만 아니라 음악 팬들과 지역 언론까지 이 지휘자를 향해 '삼초려'를 펼쳤다. 시카고 심포니 사무국은 수석 지휘자를 비롯해 어떤 직책이든 가능하다며 사실상의 '백지 위임'을 보였다.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 언론은 "무티야말로 시카고 심포니의 완벽한 조합"이라며 낮 값치러온 찬사까지 보였다. 지휘자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발벗고 나선, 유례 드문 일이 벌어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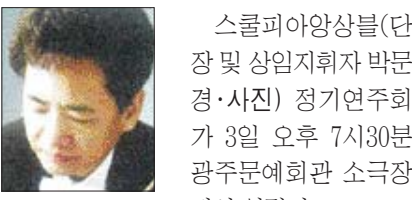
결국 고집과 강단 있기로 소문난 지휘자 무티가 마음을 풀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초 나는 창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지낼 생각이었다. 새들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만, 가끔 나무를 발견하고 내려앉고 싶을 때도 생겨난다. (시카고는 그런 나무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도 지난날 시카고와 겪었던 마음고생을 똑똑히 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자리는 조영택 전 위원장의 후임자를 찾지 못해 60여 일째 공석이고, 광주비엔날레 문화CEO도 수개월째 영입하지 못하고 있다. 조성위원장 문화 CEO 후보로 이어진 전 문화부 장관,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김창일 아라리오갤러리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고사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는 이들의 '몸값'을 무색하게 하는 낮은 대우가 큰 이유겠지만, 거물들의 마음을 적시는 리브코의 부재 탓도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는 그 입지가 불안하고 광주비엔날레 역시 '신정아 사건'으로 명성이 크게 실추돼 왔다. 이같은 위기로부터 '문화광주'를 구하려면 광주시와 시민들도 유능한 수장 영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공 얼어붙은 무티의 마음을 녹인 건 달콤한 '백지위임'이 아니라 시카고의 끈질긴 구애였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스쿨피어양상블 연주회 3일 광주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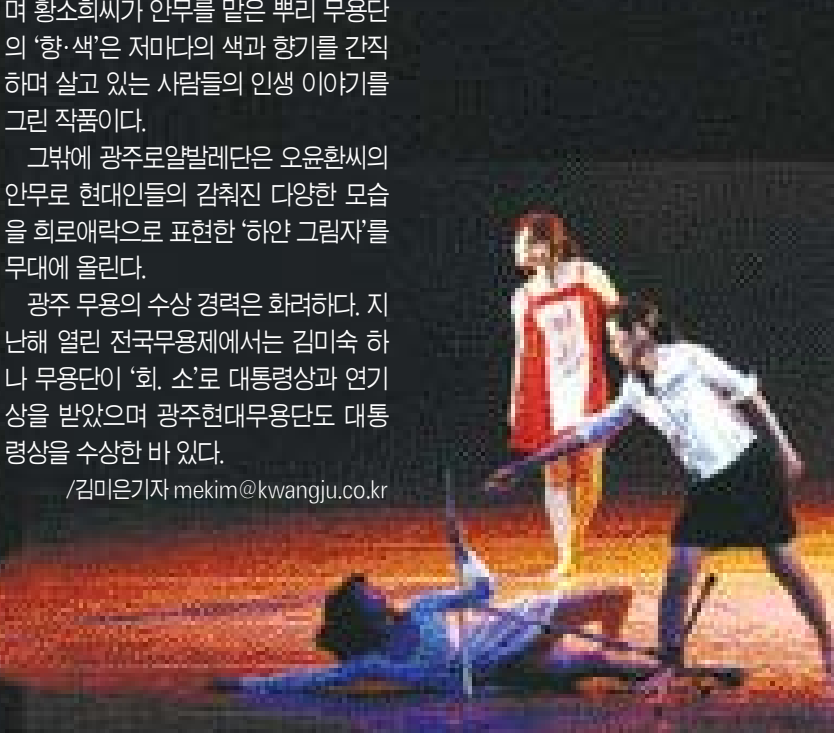


스쿨피어양상블(단장 및 상임지휘자 박문경·사진) 정기연주회가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화회관이 기획한 '화요예술무대'에 초청받은 스쿨피어양상블은 이번 공연에서 파헬렐의 '개와 지그', 스페인 음악가 알베니스의 '에스파냐'를 들려준다. 또 플루티스트 이현경(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씨가 바하의 '관현악 모음곡 2번'을 협연한다. 스쿨피어양상블은 조영창, 강종모, 양성식, 김상진 등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연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왔다. /김미경기자 mekim@

광주무용제 5일 '광파르'

2008 전국 무용제 광주 대표 선발 ... 5개 팀 참가

광주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의 기량을 민낫할 수 있는 제 17회 광주무용제가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정혜경 송원대 교수) 주최하는 이번 무용제는 오는 9월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광주 대표를 선정하는 자리다. 특히 젊은 안무가들의 재기 넘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으는 행사이기도 하다. 경연 참가 단체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5개 팀이다. 김미선 무용단의 '여덟개의 시선' 안무 김미선은 사회의 편견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경쾌한 리듬으로 풀어낸 현대 무용작품으로 김민성·한은정·나야람씨 등이 출연한다. 백난희씨가 안무를 맡은 광주현대무용단의 'What do you say?'는 낯선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찾아가는 이들을 그린 작품이다. 또 김미숙 하나 무용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잃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낸 '푸른 자락'(안무 김미숙)을 선보이



며 환소희씨가 안무를 맡은 뿌리 무용단의 '향·색'은 저마다의 색과 향기를 간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밖에 광주로일발레단은 오윤환씨의 안무로 현대인들의 감춰진 다양한 모습을 희로애락으로 표현한 '하얀 그림자'를 무대에 올린다. 광주 무용의 수성 경력은 화려하다. 지난해 열린 전국무용제에서는 김미숙 하나 무용단이 '회·소로' 대령성과 연기상을 받았으며 광주현대무용단도 대령성을 수상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관전역사거리 ☎061-544-0600

1관	인디애나 존스 (12세)	최고급관
2관	인디애나 존스 (12세)	
3관	88	